

# 구약성서의 전통적 거대동물 모티프를 통한 인간 이해: 욥기 40, 41장을 중심으로\*

이정학(호서대)

## 1. 들어가는 말

욥기는 38장에서 41장에 이르기까지 두 번의 하나님 응답이 묘사되어 있다. 욥기 38장 2절-40장 2절에는 첫 번째 대답이, 욥기 40장 7절-41장 34절(41:26)<sup>1</sup>의 내용에 두 번째 응답이 표현된다고 본다.<sup>2</sup> 그 이유는 욥의 대답들이 하나님의 폭풍우 신언설 뒤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sup>3</sup>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두 번째 신언설 후 있었던 욥의 대답에

\* 이 글은 제128차 한국구약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주제연구로 발표한 논문을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1 이하 이곳에서 명시되는 히브리어 성서(MT)의 다른 장, 절수는 [ ] 안으로 표기하겠음. 인용되는 성서 본문의 구절은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다면 개역개정본임.

2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정학,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문학적 모티프에 나타난 욥의 정체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7), 1-3을 참조.

3 안근조는 “주석가 대부분은 하나님이 폭풍우 신언설로 욥에게 적절한 대답을 하신다고 해석한다.”라면서, 욥기 38장-41장에 이르는 하나님의 대답을 네 부분의 문학적 구성으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안근조, “욥과 베헤못 그리고 리워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폭풍 속에서 들린 하나님의 두 번째 음성은 베헤못(Behemoth)과 리위야단(Leviathan)에 관한 것이었다. 특별히 이곳에서 욥기 40장 15-24절까지는 베헤못을, 그리고 리위야단은 욥기 41장 전체로 설명한다. 적잖은 분량이 할애된 설명은 그 내용이 중요함을 말한다. 실제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교육 후 있었던 욥의 고백은 하나님께 닿았다. 하나님은 욥이 옳다며 번제를 드리게 하셨다(욥 42:7-8). 두 번째 신언설 후 있었던 욥의 고백을 받아주신 것이다. 무엇이 욥의 고백을 이끌었을까? 본 연구에서는 욥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전제로, 두 번째 신언설에 중요한 대답이 있음을 밝히려 한다.<sup>4</sup> 그리고 두 거대동물이 욥의 두 번째 응답을 이끌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임에도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존재로만 해석되는데,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야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sup>5</sup> 더 나아가 욥은

(욥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神學思想』 126 (2004), 57-78을 보라.

- 4 두 번째 신언설의 해석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더 알기 원한다면 다음의 자료를 참조. C. G. Jung, *Answer to Job* (trans. R. G. C. Hu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4), 31; B. Lynne Newell, "Job: Repentant or Rebellious?", *WTJ* 46 (1984), 298-316. (= *Sitting with Job: Selected Studies on the Book of Job* [ed. Roy B. Zuck;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2]), 441-456; Ellen J. van Wolde,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in *The Book of Job* (ed. W. A. M. Beuken; BETL 11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23-250. David J. A. Clines, 「욥기(하)」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14), 332.
- 5 베헤못과 리위야단 본문의 해석에 관한 논쟁은 다음의 자료를 참조. Andrew E. Steimann, "The Structure and Message of the Book of Job", *Vetus Testamentum* XLVI (1996), 86; David Wolfers, "The Lord's Second Speech in the Book of Job", *VT* XL (1990), 474. J. van Oorschot, *Gott als Grenze* (BZAW, 170;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7); A. de Wilde, *Das Buch Hiob* (OTS, 22; Leiden: Brill, 1981), 42; Claus Westermann, *Der Aufbau des Buches Hiob* (Stuttgart: Calwer Verlag, 1977), 108-124; Samuel Terrien, "The Yahweh Speeches and Job's Responses", *Review and Expositor* LXVIII (1971), 503; Matitiah Tsevat,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7 (1966), 84, 89-90; Georg Fohrer, *Das Buch Hiob*, KAT 16 (Gütersloh: Gerd Mohn, 1963), 487ff. 반면, 두 번째 폭풍우 신언설이 하나님 응답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해석하는 관점 또한 팽팽히 맞서 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Kathleen M. O'Connor, "Wild, Raging Creativity: The Scene in the Whirlwind (Job 38-41)", *In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 D. Miller*. ed. by Brent A. Strawn and Nancy R.

www.kci.go.kr

교보재로 이미지를 활용하신 하나님의 계몽에 따른 신앙 고양을 경험하였다. 그런 욕의 모습을 통해 신앙의 고양을 경험한 인간 이해를 본 논문의 주요 초점으로 도출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역사 비평에 기반한 문학적 비평이 시도될 것이다. 먼저 구조 비평으로 베헤못과 리위야단에 관한 이야기 사이의 유사성을 논의하고, 수사적 비평을 바탕으로 문학적 모티프(motif)의 변화 과정에도 주목하려 한다. 객관적 분석을 위한 추가적 작업으로 고대근동<sup>6</sup> 문헌 간의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와 논점의 흐름과 관련성 있는 다른 논문의 검토를 사전에 수행할 것이다. 주된 연구의 범위는 전통적 거대동물의 이해를 돕는 문헌과 주제, 베헤못과 리위야단이 묘사되는 장면(욥 40:15-41:34[41:26])으로 제한한다.

---

Bowen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174-177; Jean L  veque, "L'Interpr  tation des Discourse de YHWH (Job 38,1-42,6)", in *the Book of Job*, ed by W. A. M. Beuke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12; Carol A. Newsom, "Considerdning Job", *Currents in Research* 1 (1993), 107;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526-528; David Daiches, "God Under Attack", in *The Book of Job*, ed. by Harold Bloom (New Haven: Chelsea House, 1988), 59-60; Athalya Brenner, "God's Answer to Job", *VT* 31 (1981), 130, 135; William Whedbee, "The Comedy of Job", *Semeia* 7 (1977), 26; Marvin H. Pope, *Job* (New York: Doubleday, 1973), xxix; Terrien, 503-504; E. Dhorme,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tr. by Harold Knight (London: Nelson, 1967), lxii; Robert Gordis, *The Book of God and Man: A Study of Job*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120; 안근조, 「지혜말씀으로 읽는 욕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246-263.

- 6 주원준은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대근동학(古代近東學 ANES: AO)'이라하며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고대근동학'의 약자로 영어는 ANES(Ancient Near Eastern Studies)를, 독일어로는 AO(Altorientalistik)를 쓴다. 물론 이 지역을 '근동'이 아닌 '중동(中東, Middle East)'으로 일컬어야 더 올바르고 지리적으로도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고대근동학'이라는 말은 학계의 관행을 따르는 학술용어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을 시대에 따라 다르게 부른다. 현대적 사건을 일컬을 때는 대개 '중동'이란 말을 쓰고, 고대문헌 등을 일컬을 때는 '근동'이란 말을 쓴다." 주원준, 「구약성경과 신들」 (경기: 한림성서연구소, 2014), 15-16. 이하 이곳에서는 '고대근동'이라 한다.

## 2. 거대동물 모티프의 이해

### 1) 고대근동과 구약성서의 거대동물

고대근동은 크게 네 지역으로 나뉜다. 아카드어로 대표되는 동부 셈어를 사용하고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아시리아 제국이 명멸한 동부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방, 남부셈어를 쓰는 이집트, 북쪽의 아나톨리아 반도의 히타이트 제국 등이 세 지역은 크고 강한 제국을 이룬 경향이 있고, 저마다 독특한 종교 문화를 이뤘다.<sup>7</sup> 그러나 약소국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레반트(또는 시리아-팔레스티나) 지역은 대개 북서셈어를 사용했는데, 주로 교역로 역할을 맡았다.<sup>8</sup> 서쪽의 지중해를 포함하여 사방으로 둘러싸인 형국의 이런 지리였기에, 레반트 지역은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지역의 작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다. 발굴된 사료(史料)들을 보니 고대 근동인들은 서로 활발하게 교류했다.<sup>9</sup> 중요한 교통로로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고대 이스라엘 안에, 근동의 문물교류는 어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문화와 종교에 자연히 익숙해졌을 것이다. 이런 이스라엘의 성서에 나타난 야훼 신앙을 드러내는 문학적 모티프 역시 이웃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는 이렇게 민족과 언어가 다채롭게 뒤섞인 환경에서 고유하게 피어났다.<sup>10</sup> 그것이 바로 야훼 유일신 사상

7 윗글, 16.

8 고대근동의 언어의 갈래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다음을 참조하라. 주원준, 「고대 근동어」(경기: 한님성서연구소, 2010), 17-26.

9 주원준이 주장하듯이 실제로 췌기문자로 기록된 영수증과 외교문서 등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고대근동 전역에 쓰였다. 이집트에서 인기가 높았던 오시리스 신상은 아나톨리아 반도와 유프라테스강 지역에서도 발견된다. 주원준, 윗글 (2014), 18. 지혜문학과 고대근동의 관계성에 대한 과거 학자들의 자세한 의견을 원한다면 안근조, 「새로운 구약성서 이해」(서울: 감은사, 2023), 284의 각주 2를 참조하라.

10 안근조는 “20세기 말부터 지적되어 온 창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21세기 이후 현실의 삶

이었다. 주변 강대국들의 문물에 영향을 받았다 하여도, ‘이스라엘의 믿음’만은 독특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 테두리 안에서 거대동물의 출현은 창조신화와 관련 깊어 나타난다. 한정된 지면 관계로 여기에서는 ‘에누마 엘리쉬(Enuma Elish)’와의 비교연구로 논지의 흐름과 관련하여 거대동물의 모티프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내용을 다루겠다.<sup>11</sup>

에누마 엘리쉬에서 소개된 창조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압수(Apsu, 지하수)와 티아맛(Tiamat, 바닷물) 신(神)들은 혼돈의 상태에 있었으며(창 1:2과 비교), 그 후 태어난 마르둑(Marduk)이 조상신 티아맛을 죽여 그 시체로 하늘을 만든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킹구의 피로 인간을 창조한다.<sup>12</sup> 이 이야기는 창조주 마르둑을 찬양하며 끝을 맺는다(창 2:3과 비교). 구약성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창 1:1-2:4a)와 많은 유사점이 있다. 궁켈(H. Gunkel)은 그의 저서에서 구약성서에 나타난 창조 시의 혼돈 주제를 에누마 엘리쉬와 비교하였다.<sup>13</sup> 마르둑과 티아맛의 전투에서처럼, ‘창조 시’에 야훼와 혼돈 세력 사이에 우주적 차원

---

에 충실하려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변화되면서 구약성서의 지혜문학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고 말한다. 교리적 구원 신학의 틀은 유지하되 현실 세계의 도전에 응답하는 윤리적 창조신학의 지평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구약성서신학에 있어서도 굳이 야훼 신앙의 고유성을 여타 고대 근동 문화와의 비교에서 도출하려 하기보다는 창조 세계의 주권자라는 야훼 신앙의 근본적인 전체하에 지혜문학을 재조명하게 됐다고 본다. 즉,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 전승은 솔로몬 시대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국제적 지혜에 영향받아 시작된 것이라기보다 이미 그 이전 시기인 출애굽과 팽야 시대를 거쳐 가난한 정착 시기에 가정과 부족 지파를 중심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안근조, *윳글* (2023), 284-289. 또 폰 라드(G. von Rad)는 이스라엘의 지혜가 후기의 발전이 아니라 야훼 신앙 초기부터 작용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야훼 경외’의 신앙이라는 인식론적 기반이 이스라엘 종교 경험의 초기부터 신앙의 근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G. von Rad, *Wisdom in Israel* (Nashville: Avignon, 1972), 155.

11 거대동물의 출현 모티프와 관련된 문헌과 구약성서의 비교연구와 관련된 학자들의 자세한 연구 내용을 원한다면 이정학, *윳글*, 9-26의 연구사 부분을 참조하라.

12 김영진 외,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94.

1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H. Gunkel, *Schö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5).

에서의 치열한 전투, 즉 ‘혼돈과의 전쟁(chaoskampf)<sup>14</sup>이 있었다고 주장했다.<sup>15</sup> 이처럼 전통적인 해석으로 궁켈은 신화적인 이미지를 끌어들이 거대동물도 ‘악’이나 ‘적대세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을 구약성서와의 연속선상에서 한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글에서 밝히려 하듯이 거대동물에 대한 혼돈 세력의 이미지는 창조신학적 관점으로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신앙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구약성서 주석가들에게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문학적 모티프는 자주 논의되었다.<sup>16</sup> 국내외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자면, 구약성서의 배경으로 고대근동의 특정 모티프가 존재함을 알게 된다. 그것은 ‘혼돈의 전쟁’<sup>17</sup>이라는 ‘창조전승’이다. 그리고 이 모티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창조자 야훼와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며, 악으로 역사에 투영된다는 사실이다. 이 악은 때로는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로도 사용되었다.<sup>18</sup> 즉,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진다. 그러나 구약성서 내에는 이런 전쟁 모티프의 긍정적 전개도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베

14 신화간의 유사점들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특정화된 신화적 이미지가 수메르를 지나 아카드와 우가릿에 이르기까지 고대근동 지역의 저변에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자세한 설명은 이정학, *윳글* (2017), 29-34을 참조하라.

15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78.

16 김준도 자신의 논문에서 “구약 학자들은 혼돈과의 전투 모티프 연구를 중심으로 본문에서 몬스터의 정체성과 의미, 창조와 종말에서 몬스터의 출현, 고대 근동의 신화 속 몬스터들과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관련된 연구를 이어왔다”라고 말한다. 김준, “몬스터 이론을 통한 욱기의 몬스터를 연구”, 『구약논단』 86 (2022), 42.

17 데이(J. Day)는 구약성서의 아래 구절들이 우가릿 문학 속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 모티프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 창 1:2, 6-10, 출 15:1-18, 욱 3:8, 7:12, 9:5-14, 26:5-14, 38:8-11, 40:15-41:26, 시 18:5-18, 24, 29, 33:7-8, 44:19-20, 46:3-6, 65:7-8, 68:23, 30, 74:12-17, 77:17-21, 87:4, 89:10-15, 93, 104:1-9, 144:5-7, 잠 8:24, 27-29, 사 8:5-8, 17:12-14, 27:1, 30:7, 51:9-11, 램 5:22b, 31:35, 51:34, 겔 29:3-5, 32:2-8, 온 2, 흠 1:4, 합 3:8-10, 15. J. Day,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 12.

18 부정적 이미지로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원한다면 이정학, *윳글*, 11-16을 참조.

헤מות과 리워야단이라는 두 거대동물이 때로는 대적자나 재앙의 이미지가 아닌 들짐승이요, 자연의 한 부분으로 표현된다.<sup>19</sup> 웬함(Gordon J. Wenham)<sup>20</sup>이나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sup>21</sup>의 해석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피조물 중 일부로 그려지는 것이다. 대적하는 악으로써 부정적 이미지의 해석으로만 거대동물 베헤מות과 리워야단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이것은 히브리 전승의 야훼 신앙으로 거대동물 모티프가 새롭게 이해 되어가는 과정으로 여겨진다.

## 2) 거대동물 모티프의 변화

구약성서 오경, 성문서, 예언서 중 몇몇 본문 연구를 살펴보면 고대 근동의 '혼돈과의 전쟁'에 관한 모티프가 변화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sup>22</sup> 특정 구약성서 본문에서 유일신론적 창조신앙과 연결되며, 야훼 신앙전승으로 독특하게 융합되면서 궁극적인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특별히 읍기에서 표현되는 베헤מות과 리워야단은 거대동물 모티프에 있어서 변화의 최종점에서 있다. 대개 성서에서의 창조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와의 관계선상에서 표현된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성서의 창조신학을 그 전체적인 전승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으며,<sup>23</sup> 고대근동 지역의 창조신화와의 비교연구를 통한다면 그 특징은 더 명확히 드러난다. 거대동물의 이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19 전쟁 모티프의 긍정적 전개를 주장하는 학자들의 견해는 윗글, 16-21을 보라.

20 Gordon J. Wenham, 「창세기 1-15」(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69.

21 Walter Brueggemann, 「창세기」(강성열 번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68.

22 전쟁 모티프의 변화에 따른 구약성서 내의 본문에 관한 연구의 자세한 내용은 이정학, 윗글, 44-51을 참조.

23 강성열, 「고대 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종교」(서울: 한울출판사, 2003), 17.

표 1. 고대근동의 창조신화가 창조신앙으로 투영된 모습

고대근동 (창조신화)	창조신앙으로 투영된 이미지	구약성서 (유일신론적 창조신앙)
신들 간의 투쟁	주제 →	창조에 봉사하는 혼돈, 창조의 일부로서의 혼돈
승리	목적 →	창조질서와 통치

물론 이 내용은 연구의 흐름과 관련된 일부 고대근동 문헌의 비교와 구약성서 내 몇몇 본문의 비교연구 결과이다. 그럼에도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모티프가 구약성서 내에서는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는 밝힐 수 있었다.

‘투쟁의 모티프’는 거대동물을 이해하는 이미지에 투영되었고, 그 전통 때문인지 베헤못과 리위야단 역시 성서 안에서의 대부분 본문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되었다. 그것은 역사에 투영되거나, 강대국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거대동물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있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혼돈과의 전쟁’과 ‘창조’라는 고대근동의 신화적 표상을 야훼 유일신 신앙의 관점에서 신화화하였다.<sup>24</sup> 그리고 비신화화된 창조의 개념을 끊임없이 자신의 역사 안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신화의 비신화화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거대동물의 이해가 변화된 것은 어찌면 당연하였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창조 전승은 신화와 역사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이해는 단순히 우주의 발생과 기원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혼돈 상태인 역사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구원 행동과

24 윗글, 53.

도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그렇게 전통적인 거대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다음 표는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해 본 것이다.<sup>25</sup>

표 2. 구약성서 내 거대동물 모티프의 변화

구분	전통적 이미지	유일신론적 창조신앙 해석
관련 본문	신 32:24 시 74:13-15 사 25:9; 27:1; 28:15,18; 30:7 렘 51:1-58 겔 32:2 호 13:14 율 1:20 나 1:4 합 3:8-15 슥 10:11	창 1:2,21 출 15:5,8,10 시 104:26 렘 12:4
주요 내용	죽음, 죽음의 영역, 혼돈, 바다, 바다뱀, 용, 바다괴물, 악어, 구렁이, 뱀, 돌고래, 고래, 참치, 하마, 하나님의 대적자, 왕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뛰노는 피조물, 인간의 죄로 인해 고통받는 존재

정리의 내용으로 예를 들어보면 악의 세력으로부터 치부되어야 할 베헤못이<sup>26</sup> 예레미야 12장 4절에서는 가뭄의 피해를 당하는 피조물로 묘사되고 있다. 전통적 거대동물을 이해하는 흐름에 변화가 찾아오고

25 단, 표 안에 정리된 구약성서 본문은 음기를 제외한, 선행 연구된 본문들에 한하였다.

26 클리포드는 예복1서 60장 7-9절을 들어 베헤못과 리워야단에 관한 설명을 한다. 두 거대동물은 각각 바다의 심연과 광대한 사막에 해당하는 피조물로 나타난다면, 베헤못은 척박한 광야를 상징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은 우가릿 신화에서 바알의 대적자로서 모트 신의 거처라고 말한다. Richard J. Clifford, 「지혜서」(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28.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이곳에서의 베헤못은 단지 동물로 표현된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역사적 현실에서 힘들게 만들고 어려움을 주는 침략 세력들 역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피조물이라 본 것이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지혜문학인 욥기에서 혁신적인 변화로 도입된다. 그 새로운 변화를 밝혀내는 중요한 키가 바로 욥기에 등장하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의 모티프이다.

### 3. 베헤못과 리워야단 모티프의 변화

#### 1) 베헤못(욥 40:15-24) 모티프의 변화

베헤못(תַּיִתּוֹן)은 욥기에서 사용된 것을 제외하고 구약성서 내 15회 사용된다. 그리고 욥기 40장 15절을 제외한 6곳에서만 순수하게 여성명사복수형으로 독립하여 쓰인다. 그 내용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표 3. 문법구조로 살펴본 구약성서 내 베헤못의 용례

구분	용례가 나타난 본문	빈도(회)
여성명사 복수	신 32:24, 욥 12:7, 시 50:10; 73:22, 렘 12:4, 합 2:17	6
남성명사 단수 취급	욥 40:15	1
접속사, 전치사, 관사 등이 포함된 여성명사 복수	느 10:36, 욥 35:11, 시 8:7[8:8]; 49:12,20, 사 30:6, 율 1:20; 2:22, 미 5:8[5:7]	9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총 16곳에서 쓰인 베헤못이, 욥기 40장 15절에서만 남성명사단수로 취급되어 독특하게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הַנְּהֵנָּה נָא בַּהֲמוֹת אֲשֶׁר־עָשִׂיתִי עִמָּךְ הַצִּיר כְּבָקָר יֹאכֵל<sup>27</sup>

(ASV) Behold now, behemoth, which I made as well as thee;  
He eateth grass as an ox,

(KJV) Behold now behemoth, which I made with thee;  
he eateth grass as on ox.

(NASB) Behold now, Behemoth, which I made as well as you;  
He eats grass like an ox.

(NIV) Look at the behemoth, which I made along with you and  
which feeds on grass like an ox.

(RSV) Behold, Be'hemoth, which I made as I made you;  
he eats grass like an ox.

(YLT) Lo, I pray thee, Behemoth, that I made with thee :  
Grass as an ox he eateth.

이제 소 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사역) 이제 베헤못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같이<sup>28</sup> 그것을 만들  
었다. 그것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위와 같이 이 본문의 베헤못을 각 번역본 모두 남성명사단수인  
'Behemoth'로 명명하고 있다. 다른 15곳의 본문들 대부분은 'cattle',  
'beasts'나 'animals'로 번역하였다.<sup>29</sup> 즉, 대부분은 짐승이나 소, 가축 등  
으로 사용되며, 그 단어가 복수이고 일부 특정 집단의 대표성을 갖는다  
고 이해된다. 그런데 율기 40장 15절에서는 단수로 간주 되어 독특성을

27 이곳에서 사용되는 히브리어 성서는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BHS(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를 따른다.

28 'עִמָּךְ(임마호)'는 히브리어 전치사 'עִם(임/함께)'에 2인칭 여성 단수 접미어가 붙은 형태로, '너와 함께', '너처럼'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연구자가 사역을 '같이'로 번역한 이유는 '같이'의 뜻이 더 포괄적으로 많은 의미(as, like 등)를 함축하고 있기에 더 넓은 의미에서 이 단어를 선택하였다.

29 정리된 내용은 율기, 54의 <표 5>를 참조.

보여준다.<sup>30</sup> 그리고 욥기에 나타난 베헤못 본문은 10절이나 할애된 분량에서 8절이나 베헤못을 설명하고 난 후 인간을 말한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또 학자들의 분석을 살펴보니 욥기에서의 베헤못 본문 구조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31</sup> 크게는 야훼를 주체로 구조를 나눌 수 있고, 세분화한다면 하나님과 베헤못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행동과 야훼 유일신 사상을 강화하는 창조신학의 흐름뿐 아니라, 새로운 변화를 찾는 목적이 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구조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sup>32</sup>

- a 15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베헤못과 욥
- b 16-18 베헤못의 용맹한 모습
- c 19-20 하나님의 창조물 중 으뜸인 베헤못
- b' 21-23 베헤못의 안연한 모습
- a' 24 베헤못을 창조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

이 구조로 본문을 이해한다면 세 가지의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둘째는, 베헤못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 최고의 존재이다. 셋째, 베헤못과 함께 창조된 인간은 연약하다. 그런데 이런 구조분석은 전통적인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과연 본문의 내용이 전하는 것이 이것뿐일까?

욥기 40장 15-24절 본문을 구조적으로 보면, 창조주에 대한 언급

---

30 애쉬(Christopher Ash)는 여럿이 아니라 하나의 생명체라는 의미에서 단수이고, 유일무이하다는 의미에서 단수라고 주장한다. Christopher Ash, 「욥기」(전희우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4), 573.

31 학자들(이근호, Clines, Longman III, 안근조 등)의 욥기 40장 15-24절에 대한 구조분석은 이정학, 윗글, 57의 <표 6>을 참조.

32 윗글, 58의 구조분석 재인용.

후 많은 분량을 베헤못에 두었다. 그리고 바로 이어 인간에 대하여 다룬다. 이것은 둘 사이에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베헤못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며, 그 설명을 통하여 인간에게 전하려는 무언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베헤못의 단어를 읍기 본문에서 특별하게 사용한 이유이며, 그렇게 중요한 베헤못의 특별함을 읍과의 관련성에 두고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로 본문의 구조를 재구성하면 아래와 같다.<sup>33</sup>

- v. 15      하나님 그리고 베헤못과 읍
- v. 16-23   피조물 베헤못의 으뜸성
- v. 24      교훈으로서의 베헤못 그리고 읍

이런 구조로 구성한다면 하나님, 베헤못, 읍이라는 구도에서 중요한 주제를 도출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 관계성에 주목했을 때, 기존의 이해와는 다른 해석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읍기 40장-41장에서 현현하여 말씀하신 베헤못과 리위야단에 관한 내용은 신언설의 절정이다.<sup>34</sup>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읍과 베헤못을 바라보는 시선에 관한 문제이다. 읍기 40장 15절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읍을 베헤못과 동일시하거나, 최소한 대등한 위치에까지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sup>35</sup>

33    윗글, 62의 구조분석 재인용.

34    폭스(Michael, Fox)는 이 창조물들의 정체성과 특징들의 재검토가 이뤄졌으며, 이것은 신현현 안에서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두 창조물들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ichael, Fox, "Behemoth and Leviathan", *Biblica*, 93 no 2 (2012), 261.

35    안근조는 사실상, 두 번째 언설의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의 도전적 제안과 질문(40:6-14)에서 창조세계의 으뜸으로서의 읍의 위치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비록 역설적인 질문들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읍에게 만물의 으뜸의 위치를 차지하

הִנֵּה-נָא בְּהֵמוֹת אֲשֶׁר-עָשִׂיתִי עִמָּךְ

(사역) 이제 베हे뭇을 보아라!내가 너와 같이 그것을 만들었다.

전통적으로 부정적 흐름을 따르는 거대동물의 이해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본문이다. 베헤뭇과의 관계성 상에서 옴은 창조 세계에서 베헤뭇의 위치에 상응하는 존재로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본다면 베헤뭇은 단순 동물로서만 이해하거나, 혼돈과의 전쟁 모티프가 반영되어야 하와 대적하는 신화적 악의 세력으로도만 이해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베헤뭇이 옴과 동일시될 정도로 밀접하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피조물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결국, 혼돈과의 투쟁이라는 모티프의 흐름과는 다른 이해이다. 즉, 거대동물의 이해가 새롭게 변화되었다. 옴기에서 그려진 이런 변화된 모습은 베헤뭇 본문에서만 국한되었을까?

## 2) 리위야단(옴 41:1-34[40:25-41:26]) 모티프의 변화

구약성서의 리위야단(לִוְיָאֵדָן)은 옴기에서 2회(옴 3:8; 41:1[40:25]), 시편에서 2회(시 74:14; 104:26), 이사야 27장 1절 한 본문에 2회로 총 6회 사용된다. 단어의 뜻은 바다괴물, 뱀, 악어, 고래 등 수상 생물 중 최상위의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나 리위야단에 대한 묘사를 보면 알려진 어떤 생물과도 맞지 않는다.<sup>36</sup> 학자들은 악어라고 어느 정도 합의하였으나, 표현의 다양성의 문제로 온전히 인정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해석은

---

도록 도전을 주신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안근조, 윗글 (2007), 193.

36 롱맨 3세는 리위야단에 대한 전통적 해석은 지상의 알려진 생물 가운데서 그 정체를 찾는 것이었다면서, 해양생물로 종종 바다에 사는 가장 두렵거나 큰 생물, 곧 고래나 악어로 여겨졌다고 본다. Tremper, Longman III, 「옴기주석」(임요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741.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신화적인 이해이다.<sup>37</sup> 결론적으로 리위야단을 자연계의 단순 생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일까? 성서의 번역에도 그 뜻을 다르게 풀어놓았다. 욥기 41장 1절의 본문을 번역한 성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sup>38</sup>

תַּמְשֵׁךְ לַיּוֹתָן בַּחֲבֵה וּבְחֶבֶל תִּשְׁקֶיעַ לְשָׁנֹו

- (개역개정) 네가 낚시로 리위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 (개역성경) 네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 (한문) 네가 能히 낚시로 鱷魚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 (바른성경) 네가 낚시로 리위야단을 낚을 수 있겠느냐? 네가 끈으로 그의 혀를 맬 수 있겠느냐?
- (표준새번역) 네가 낚시로 리위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 (공동번역) [욥 40:25] 너는 낚시로 레비아단을 낚을 수 있느냐? 그 혀를 끈으로 맬 수 있느냐?

결국, 리위야단은 대부분 ‘Leviathan’으로 번역하나 그 단어 자체로는 뜻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자연 생명체보다는 신화적인 요소를 반영하는 것에 힘을 실을 수 있겠다. 즉, 신화적 특징 또는 의미로 묘사된 실제 생물로 봄이 가장 합당하겠다. 욥기에서도 남성명사단수

---

37 학자들의 다양한 해석은 이정학, 윗글, 75-76을 참조.  
 38 베혜못 본문 단어연구와의 통일성을 위해, 다양한 영문번역본들을 살펴보려 했으나, 하나 같이 “Leviathan”을 사용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ASV, KJV, NASB, NIV, RSV, YLT 역본들을 참조하라. 그래서 뜻 번역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개역성경, 한문, 바른성경, 표준새번역, 공동번역으로 정리하여 비교하였다. 리위야단 번역의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한 곳이므로 별도로 사역은 하지 않겠다. 연구자는 ‘리위야단’으로 번역한다.

로 취급되어 하나의 고유한 존재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욥기 41장을 통으로 할애할 만큼 리워야단은 세밀하게 표현되고 있다.<sup>39</sup> 리워야단은 포획 불가능하며, 모든 짐승 중에서 으뜸인 존재이다. 베헤못의 모습과 비슷함을 보인다. 이곳에서의 차이점은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질문들로 먼저 내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욥을 향한 2인칭의 질문이 41장 9절(1)부터는 하나님의 독백으로 바뀌게 된다.<sup>40</sup> 그러면서 리워야단의 모습을 상세히 묘사하고, 끝으로 그것이 창조물 중에서 왕 노릇을 한다고 마무리한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의 구성을 통해 베헤못 본문과 상응하는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베헤못 본문의 가장 중심적 요소가 욥과의 관계성임을 알았다. 그러나 상응하는 구조로 보이는 리워야단 본문에서는 그 관계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베헤못 본문 가운데 욥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욥기 40장 15절에서 그 실마리를 제공한다.<sup>41</sup> 하나님은 1인칭 주어로 “이제 베헤못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와 같이 그것을 만들었다.”(사역) 라며 연설한다. 이처럼 리워야단 본문의 41장 9-12절(41:1-4)에서도 야훼께서 1인칭 주어로 연설하시는 모습이 표현된다. 그러나 해당 본문은 원문 자체가 불안정하기에 전통적으로 번역자들에게 난해한 부분으로 여겨져 왔다.<sup>42</sup> 번역마다 대명사가 지칭하는 대상이 다르기에 그 결정에 따라 의미도 달라진다.<sup>43</sup> 그럼에도 안근조는 본문에 대한 본문 비평적 검토와

39 본문에 대한 학자들의 구조분석은 이정학, 윗글, 78의 (표 8)을 참조.

40 안근조, 윗글 (2007), 252.

41 윗글, 254.

42 Norman C. Habel,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554-555 재인용.

43 일일이 본문 제시는 못하나, 한글 개역개정, 개역성서와 ASV, KJV, NASB, NIV, RSV,

문학적 분석으로 교정된 번역안을 제시한다. 리위야단 본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sup>44</sup> 다음은 해당 본문의 대명사를 해석 없이 그대로 옮겨놓은 안근조의 문자적(literal) 번역이다.<sup>45</sup>

- v. 9[1]    자, 보아라!(<sup>17</sup>) 그의 소망은 꺾였다.<sup>46</sup>  
          그러나 그가 그것의 모습으로 인해서 굴복하겠느냐?
- v. 10[2]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다.  
          그렇다면 내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 v. 11[3]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안다(가지고 있다)!
- v. 12[4]   나는 그의 항변에 대하여 잠잠치 않으려 한다.  
          그의 힘있는 말과 설득력 있는 불평에 대해서 말이다.

이런 이해라면 본문에서 읍과 리위야단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절(2)의 후반절에서 ‘누가 내 앞에 설 수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반문은 인간의 연약함이 강조된다. 그런데 11절(3)의 독백을 보면 인간이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sup>47</sup> 문맥상, 그 누구도 야훼께 맞서서 응답하게 할 수 없는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나타나게 하였다는 말이다. “누가 나와 맞서서 나로

---

YLT 등과 같은 성서는 10-11절의 야훼를 나타내는 1인칭을, “me”로 번역하여 히브리어 원문(MT)과 상응하여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나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 새번역, NRSV는 1인칭을 3인칭으로 바꿔 “it”이나 “him”으로 번역하여 본문의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다. 이것은 본문이 얼마나 모호하며, 불안정한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44 안근조, *윗글* (2007), 196-201.

45 *윗글*, 254-256.

46 본문 사역에 대한 문법적인 근거와 풀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윗글*, 254-256의 각주 29)에서 39)를 참조하라.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자료들을 참고. 안근조, *윗글* (2004), 67-70; Carol A. Newsom, *The Book of Job* (NIB IV; Nashville: Abingdon, 1996), 554-555.

47 안근조, *윗글* (2007), 198.

하여금 응답하게 하는가? 온 천하 가운데 나는 그를 안다(가지고 있다!)” 바로 욥에 대한 말씀이다. 하나님을 응답하게 하는 자! ‘그’는 바로 욥이다. 번역의 어려움이 있기에 드러나지 않던 그를 찾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맥락으로 본문의 구조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겠다.<sup>48</sup>

- v. 1-8[40:25-32] 하나님의 도전적 질문
- v. 9-12[41:1-4] 하나님 그리고 리위야단과 욥
- v. 13-34[5-26] 리위야단의 용맹한 모습과 으뜸성

이렇게 구조를 나누면 리위야단의 묘사가 베헤못에 대한 묘사와 평행하며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욥은 이 땅의 피조물 중 유일하게 리위야단을 향하여 대응할 수 있는 창조물로 인정되고 있다. 리위야단도 욥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함을 짐작하게 만든다.

전통적 거대동물의 흐름과는 다르게 욥기 41장 본문에서의 리위야단은 새로운 이해로 읽힌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최고의 피조물이었다. 욥과의 관계성을 갖고 중요한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런 리위야단의 여섯 본문을 변화의 흐름에 따라 모티프의 변화를 추적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리위야단의 이미지 변화: 문학적 모티프에 따른 재구성

성서본문	리위야단의 이미지 및 상징적 의미
시 74:14	여러 머리를 가진 공격적 존재로, 악의 세력 상징
사 27:1	악과 혼돈을 대표하며, 역사 속 강대국을 상징
욥 3:8	일식(蝕)을 일으키는 바다 괴물로, 혼돈의 힘에 동요되는 존재

48 이정학, 윗글, 83의 구조분석 재인용.

시 104:26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바다에서 노니는 피조물
욥 41장	베헤못과 싸울 이루는 최고의 피조물로, 단순한 혼돈의 상징을 넘어 창조 질서 내 특별한 존재로 부각

이처럼 처음 리워야단의 이해는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모티프가 투영된 부정적인 이미지였다. 그러다 야훼의 창조섭리 가운데 뛰노는 피조물로, 그 모든 피조물 중 최고의 자리로 인식의 흐름에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sup>49</sup> 이를 개념화하여 도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리워야단의 성서 내 인식의 변화 양상

구분 (모티프 유형)	관련 본문	주요 특징 및 의미
신화적 전투	시 74:14, 욥 3:8	혼돈 세력과의 전투, 고대 신화적 상상력 반영
심판	사 27:1	하나님의 궁극적 심판과 승리 상징
창조	시 104:26	창조 질서 내 피조물로서의 리워야단
지혜	욥 41장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교육적 모티프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리워야단 모티프 변화의 최고 정점은 욥기 41장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하는 지혜 전승의 교육적 모티프로 활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이해로 리워야단의 정체성을 본다면 그것이 단순한 자연계의 생물체라고만 보는 것은 무리이다. 목적과 그 존재가 묘사되는 모습도

49 강철구도 두 신화적인 동물들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묘사된다고 본다.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 (2017), 154.

우리가 알고 있는 생태계의 피조물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sup>50</sup> 그리고 야훼께서 신언설 내내 욥에게 수사학적 질문을 하시다가, 갑자기 욥기 41장 9절(1)이후 2인칭이 사라지고, 1인칭 하나님의 독백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인칭이 변한 이유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우리는 베혜못과 상응하는 연결점 이외의 것을 더 생각해 보게 된다. 사실 하나님은 욥기 41장 9절(1)이후에는 독백이 아닌, 천상의 존재들에게 욥이야말로 리위야단에 비견될 만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된다.<sup>51</sup> 욥이 무질서와 고통의 현실 앞에 과감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이해를 통한다면 리위야단과 베혜못의 등장 목적은 욥을 격동시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리위야단의 정체성은 그런 이해로 살렸을 때 더욱 명확해지고, 욥과의 관계성과 직결된다.

일반적으로 욥기 41장 9-12절 본문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리위야단과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으로만 받아들여져 왔다. 그것을 통해서 야훼께서는 욥의 저항과 도전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만 해

---

50 예를 들자면 욥기 41장 21절(13)에서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라고 묘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악어, 아니 생물도 불을 내뿜지는 않는다. 리위야단이 악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합의된 바이지만, 인정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있는 것은 이런 표현의 다양성 때문이다. 연구자 역시 리위야단을 단지 악어로만 보지 않는다. 에드만스는 그것을 돌고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돌고래는 리위야단을 묘사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하지 않다. 드라이버는 리위야단을 고래로 확인했으나, 클린스가 지적 하듯이 큰 고래는 지중해나 홍해 또는 페르시아 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폭스 또한 드라이버의 주장은 20세기의 학자 중 유일하다. 그는 자신의 견해로는 리위야단이 모비딕(Moby Dick)에 나오는 고래 같으나, 결국 용(dragon)이라고 정리한다. 또 다른 해석으로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신화적인 이해가 있는데, 리위야단의 신화적 해석은 궁겔에 의해 처음 주장되어, 체인에 의해 채택된 것 같다. 그것은 투르-시나이, 바이저, 포프, 그리고 하벨의 주석들에 채택되었고, 데이 및 카쿠에 의해서도 선택된 해석이다. 킬과 쿠비나는 리위야단을 호러스와 싸울 때 악어로 표현된 이집트의 신 셋(Seth)이라고 주장했다. David J. A. Clines, 「욥기(하)」 296; G. R. Driver, “Mythical Monsters in the Old Testament”, in *Studi orientalistici in onore di Giorgio Levi della Vida*, I (Pubblicazioni dell'Istituto per l'Oriente 52; Rome: Istituto per l'Oriente, 1956), 234-238; Michael. Fox, “Behemoth and Leviathan”, 264-267; Christopher Ash, 「욥기」 584-585.

51 천상의 존재들에게 말하는 이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근조, 윗글 (2007), 198.

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로 보아, 리위야단은 욥에게 무력함의 도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도전한다.<sup>52</sup> 하나님은 1장과 2장의 천상회의에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곳에서도 천상의 존재들에게 말하며 욥을 격동시킨 공포의 존재 리위야단과 같은 위치로 그를 격상시키신다. 욥에게 지혜자적 깨달음을 주실 목적에서 베혜못과 리위야단이라는 문학적 모티프를 사용하신 것이다.

#### 4. 욥의 정체성 이해

##### 1) 전통과 무질서로서의 욥

사회적인 위치로 보자면 욥은 요단 동편 우스 땅의 반유목민 족장이었다.<sup>53</sup> 그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통해 잘 드러난다(욥 1:8).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다.<sup>54</sup>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과 같은 자가 세상에 없다고까지 말씀하신다. 욥기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온전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תָּם**(탐/tām)인데, 풍부하고 복잡한 의미가 있다. ‘탐’은 구티에레즈(Gustavo Gutierrez)도 설명하듯 결백을 의미하나 개인적 온전함을 함축한다. “어떤 완성됨”, “완전”, “완벽”의 뜻을 지닌다. 따라서 모범적인 것을 함의한다.<sup>55</sup> 그러므로 그 단어는 “의로움”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때도 이 ‘탐’이라는 말을 사용

52 윗글, 199.

53 본 연구에서는 욥의 실존 유무에 초점을 두지 않기에 이곳에서는 논점으로 밝히지 않겠다.

54 크렌쇼(James L. Crenshaw)도 욥의 성품에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본다. James L. Crenshaw,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136.

55 Gustavo Gutierrez, 「욥기」(제3세계신학연구소 번역실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32.

한다.<sup>56</sup> 욥은 그의 인간성의 내적 일관성을 강조하는 서술인 “온전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에<sup>57</sup> 덧붙여, “정직한 사람”이라고까지 일컬어진다.<sup>58</sup> 이것은 그가 윤리적 규범들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말한다. 즉, 욥은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욥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무질서로서의 욥’의 상태였을 때 세 친구의 권선징악 논리에 대항하여 끈질기게 부인한 것이다.

자연히 욥의 가족 집단 역시 온전한 모습으로 표현된다.<sup>59</sup> 그는 일곱 아들과 세 딸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들 가족은 자주 열린 것으로 보이는 잔치 때마다 서로를 초청하여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 또 그는 칠천 마리의 양과 삼천 마리의 낙타, 오백 겨리의 소, 오백 마리의 암나귀 및 무수히 많은 남녀 종 등을 소유한 대단한 재력가였다(욥 1:2-4). 이런 목가적인 그의 삶에 흠이 있다면, 자녀들이 부지중에 야훼께 범죄 할까 봐 지나치게 걱정하는 성격이었다. 이에 욥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까지 취한다. 잔치 후 자녀들을 불러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것이다(욥 1:5). 이런 전통적인 욥의 문제는 그가 더 깊은 수준으로 도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심에 있었다. 그것이 욥기 3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 방대한 분량에 표현되어 있다.

욥기 3장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던 욥은 자신의 생일 저주를 시작으

56 관련 성구는 욥기 9:20-21; 12:4; 27:5; 31:6을 참조하라.

57 클린스도 탐을 “온전한”으로 번역하는 것이 “완전한” 보다 더 낫다고 설명한다. David J. A. Clines, 「욥기(상)」(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196.

58 S. Terrien, *Job*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1963), 52. 구티에레즈도 ‘완전’이라는 히브리인의 이상은 육체적이고도 도덕적인 건강 둘 다를 포함하며, 완전함, 원만함, 동질성을 암시한다고 말한다. 욥은 내적인 평형과 자기억제력을 가진 사람일 뿐 아니라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따라서 ‘정직한’ 사람이기도 한데, 그것은 그가 그의 동료들에게 올바름과 정의를 실천했기 때문이다. 성실함과 올바름은 보완적인 미덕이다. Gustavo Gutierrez, *윗글*, 39.

59 클린스 역시 욥의 인격이 그가 많은 후손과 소유를 갖게 되는 전제 조건이었음을 말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David J. A. Clines, *윗글* (2006), 198-200.

로 탄식을 털어놓고, 친구들과의 대화를 시작한다. 읍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는 ‘세 개의 대화 순환’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읍은 친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가 세 친구에게 제각기 답변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sup>60</sup> 어떤 점에서 보면 읍을 위로하려는 세 친구가 공통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개별적인 시각들을 규정하긴 어렵다. 그들의 모든 발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은 어려워도 논쟁의 흐름은 따라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친구와 읍 사이의 대화 구조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sup>61</sup>

표 6. 읍과 친구의 대화 부분의 구조

구분	순환 구조 (4장-27장)		
읍과 세 친구 사이의 대화	첫째 순환 (4장-14장)	둘째 순환 (15장-21장)	셋째 순환 <sup>62</sup> (22장-27장)
	엘리바스(4장-5장)	엘리바스(15장)	엘리바스(22장)
	읍(6장-7장)	읍(16장-17장)	읍(23장-24장)
	빌닷(8장)	빌닷(18장)	빌닷(25장)
	읍(9장-10장)	읍(19장)	읍(26장-27장)
	소발(11장)	소발(20장)	
	읍(12장-14장)	읍(21장)	

60 James L. Crenshaw, *읽글*, 143-144.

61 이정학, *읽글*, 100의 <표 12>를 재인용.

62 셋째 순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재구성들이 시도 되었다. 여기서는 논지의 흐름에 도움이 되는 임승필의 제안에 따라 구조를 나눴다. 민영진/임승필, 「시서와 지혜서」(광주: 생활성서사, 1999), 21. 현재의 본문이 훼손되어 있기에 소발의 말이 없고 빌닷의 말은 이상할 정도로 짧으며, 읍은 친구들의 견해를 일관성 없게 시인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읍 24:18-24; 26:5-14; 27:13-23). 앤더슨의 말처럼 편집자들이 이 본문을 다시 정리하면서 읍의 진술들을 수정하려고 애썼던 것으로 보인다. Bernard W. Anderson, 「구약성서이해」(강성열/노항규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

욥은 그를 위로한다는 친구들의 말이 이제는 지겨운 것 같다.<sup>63</sup> 욥기 6장과 7장에서 그는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한다. 엘리바스가 욥의 잘못을 들춰내지는 않았으나, 그는 엘리바스의 논리가 자신을 죄인으로 정죄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전통적인 신앙과 교리를 바탕으로 자기들의 이론을 펼쳐나간다. 그들은 전통적인 지혜문학의 가르침을 대변하는 이스라엘의 현인들이다.<sup>64</sup> 이로써 욥과 세 친구 사이의 출발점과 관점의 차이가 드러난다. 세 친구는 욥의 고통이 밖에서 안으로 오는 것으로 보며, 이론의 관점에서 서서 하나만을 판단한다. 반면, 욥은 고통을 겪는 인간 실존의 내부 한가운데서부터 출발한다. 이미 관점이 다른 것이다. 세 친구가 욥에게 대답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정의에 의한 응보’이다.<sup>65</sup> 결국, 양쪽의 주장은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이전에 평행선을 긋게 된다. 그들 사이는 감정과 걱정의 벽이 더하게 되고, 대화도 그렇게 전개된다.

처음에 욥은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즉시 생명을 끊어 주길 바라는 것에 만족했다(욥 6:8-9). 그러나 그는 곧 견잡을 수 없는 말이 터지고,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고 그 책임 또한 야훼께 있다고 부르짖는다.<sup>66</sup> 그런 욥에게 변화가 찾아왔다. 그는 거친 상상력을 발휘, 하나님이 신화적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는 하늘의 전사처럼 자신을 괴롭히는 폭군 같다고 토로한다.<sup>67</sup> 이 본문이 바로 바다괴물이 등장

---

트, 2009) 710.

63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54.

64 민영진/임승필, 윗글, 34.

65 윗글, 35.

66 Bernard W. Anderson, 윗글, 717.

67 장일선, 윗글, 47.

하는 욱기 7장 12절이다.

הַיָּם־אֲנִי אִם־תִּנּוּן כִּי־תִשִּׂים עָלַי מַשְׁמֶר

(사역) 내가 바다입니까? 용(바다괴물)입니까? 주께서는 어째서 나를 지키십니까?<sup>68</sup>

욱은 부정적 이미지인 하나님의 대적 세력으로 인식된 혼돈의 존재로 자신을 묘사하며 야훼께 따지듯이 반문하고 있다. 앤더슨도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욱 자신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 지키고 있는 야훼의 큰 원수, 신화적인 바다의 괴물과 같다고 한다며 욱과 바다괴물을 연관시킨다.<sup>69</sup> 욱은 왜 자신을 그런 혼돈의 존재로 묘사하였을까? 안근조는 저서에서 이 문제의 해답을 아래와 같은 명쾌한 해답으로 제시한다.

첫째, 욱은 자신이 하나님의 직접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마침내 폭풍우 가운데 응답하실 때 바다괴물을 가리키는 리위야단의 존재가 실제로 언급되는데, 그 리위야단은 앞서서 나타난 베헤못과 더불어 욱과 비견되는 존재들로서 등장한다.<sup>70</sup>

욱은 고통 가운데 자신을 바다와 같은 비극적이면서도 혹독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존재로 비유하고 있다. 연구자는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폭풍우 신언설 가운데 욱기 40장, 41장에서 베헤못과 리위야단을 등장시키신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은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신화적 모티프가 만연했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

68 이정학, 윗글, 102의 사역 재인용.

69 Bernard W. Anderson, 윗글, 717.

70 안근조,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욱의 깨달음」(경기: 킹덤박스, 2012), 85.

고 욥이 가장 잘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교육하신 것이다. 이로써 베헤못과 리위야단은 누구에게든 교훈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이해의 폭이 넓혀지게 되었다. 욥기 7장 12절에서 고통가운데 있는 무질서로서의 욥은 이미 자신과 무질서인 혼돈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반문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존재들이 자신이 즐거워하는 최상의 피조물이라며, 욥을 그 위치에까지 격상시켜<sup>71</sup> 그를 교훈하신다.<sup>72</sup> 하나님은 욥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정적이며, 혼돈의 존재인 그것들이 사실은 으뜸가는 창조물이라 말씀하시며 새로운 인식의 차원으로 욥을 초청하신다. 반문에 또 다른 반문으로 그를 인도하신다. 무질서로 고통에 놓인 욥은 베헤못을 통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즉, 삶의 모순에 놓여있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으뜸가는 존재로 바라보심을 깨닫는다. 리위야단을 통해 욥은 이제 야훼 하나님의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도 깊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2) 새창조로서의 욥

욥기의 폭풍우 신언설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도도한 항변에 대한 질타이다. 동시에,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 더욱 성숙한 이해를 하게끔 이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세계(욥 38:4-39:30)와 두 거대한 피조물들(욥 40:15-41:34[26])에 대한 도전적인 질문들로 욥을 교정하고 계몽하신다.<sup>73</sup> 거대동물을 통한 하나님의

71 베헤못과 리위야단을 욥 자신의 상징들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야훼는 욥의 행동의 결과에 관해 욥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들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다. J. Gammie, "Behemoth and Leviathan. On the Didactic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Job 40:15-41", J. Gammie and W. Brueggemann, *Israelite Wisdom*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8)을 참조하라.

72 안근조도 "욥은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뜻하지 않는 차원에서 욥 자신의 '바다'됨을 듣게 된다"고 역설한다. 안근조, *윗글* (2012), 86.

73 Bernard W. Anderson, *윗글*, 722.

연설은 아주 훌륭한 맞춤식 교육이다. 이미 바다괴물과 자신을 비유하여 반문하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두 거대동물을 통해 재차 반문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의 위치를 그 두 괴조물과 같은 자리로까지 격상시키신다. 욥은 이제 부정적으로만 여겨졌던 혼돈의 세력이 하나님의 으뜸가는 괴조물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를 보게 되었다: “(사역)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명성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바라봅니다”(욥 42:5).<sup>74</sup>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수사학적으로 끊임없이 반문하시며 질문 세례를 행하신 것이다. 이제 베헤못과 리위야단을 통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통해 계몽을 경험한 욥은 새로운 경계로 초대받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다.<sup>75</sup> 이는 결국, 구약성서 내 드러나는 ‘혼돈과의 전쟁’이라는 모티프를 통한 전통적 거대동물 이해의 흐름이, 지혜문학인 욥기에서 새롭게 변화되었음을 이해하는 초석을 제공한다. 그 변화된 흐름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sup>7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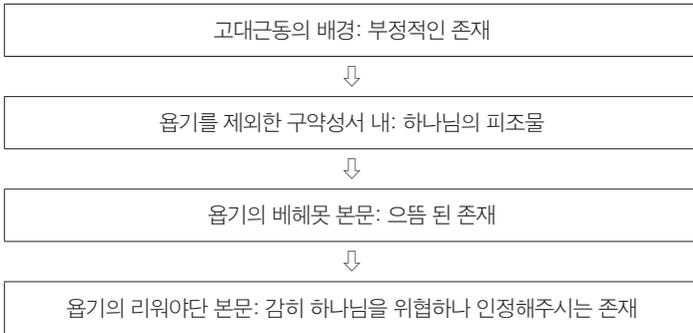


그림 1. 욥과 거대동물의 이해에 대한 문학전승사적 변화

74 욥의 이 고백은 새로운 지평으로 확장됨을 볼 수 있게 한다. 이정학, 윗글, 111의 사역을 재인용.

75 안근조, 윗글 (2007), 259.

76 이정학, 윗글, 110의 (도표 3)을 재인용.

이런 이해로 본다면 베혜못과 리위야단은 욥을 교육하려는 하나님의 교육교재로 쓰였다. 그러나 꾸중이나 교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도전과 격려 그리고 성숙한 깨달음으로 초청한 길잡이였다.<sup>77</sup> 하나님을 경험한 사명자의 갱신이 욥의 폭풍우 언설 체험이다. 삶의 고통 가운데 애통에 젖어 하나님께 항변하고, 도전하던 욥이었다. 그랬던 그가, 눈앞에 피부로 경험되어진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되고, 낡은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된 것이다.<sup>78</sup> 그는 그 새로운 정체성 속에서 자신과 세상의 관계가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확장되고, 성숙해지는 갱신의 변화를 체험하였다. 이것이 안근조도 주장하는 지혜자인 욥기 저자가 의도한 ‘지혜자적 깨달음 (Sapiential Enlightenment)’<sup>79</sup>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욥은 새창조 되었다. 그것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욥 자신의 고백이 담겨있는 4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이다.<sup>80</sup> 우리는 새로운 경지로 회복을 누리게 된 욥의 모습<sup>81</sup>을 통해서, 혼돈과 무의미한 삶 속에서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를 찾았다. 지금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한다.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경계로 초대를 받는다. 지금이다.

77 안근조, 윗글 (2007), 260.

78 이정학, 윗글, 112.

79 안근조, 윗글 (2007), 262.

80 이정학, 윗글, 114.

81 욥이 새로운 경지로 나아갔다는 증명에 대한 설명과 회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정학, 윗글, 114-115를 참조하라.

## 5. 나가는 말

욥기가 친숙하게 읽히기도 하는 이유는 우리 삶의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역시 베헤못과 리위야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욥과의 관계성을 밝혀가니 고통의 문제와 같은 보편적인 문제들과 부딪치게 되었다. 야훼께서는 어찌하여 많은 것 중에서도 두 거대동물들 통해서 욥을 계몽하셨는가? 이런 보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깨달음을 위한, 그 시대 가장 적절한 언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욥기 7장 12절 본문의 욥의 ‘혼돈 세력으로서의 자기비유’를 주석하여 밝혀낼 수 있었다.

하나님은 베헤못과 리위야단의 모티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존재요, 최고의 피조물로서의 개념을 사용하셨다. 이미지를 교보재로 활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다. 그리고 그것은 욥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고의 언어였다. 이로써 무질서의 상징임과 동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피조물로서 인간존재의 상징성을 띤 두 거대동물은 욥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든 교훈할 수 있는 존재로 그 이해의 폭이 넓혀졌다. 결국, 보편적이지 않을 것 같은 질문도 보편성으로 해결되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깨달음이다. 교육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이해를 노래하는 누군가의 선생(先生)들에게도 해당하는 가르침이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든 그 시대에 가장 알맞은 언어로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제 그 초대에 응답하기만 하면 된다.

### 참고문헌

- 김준, “몬스터 이론을 통한 욥기의 몬스터들 연구”, 『구약논단』 86 (2022), 41-68.  
강성열, 『고대 근동 세계와 이스라엘 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3).  
강철구, “욥의 하나님 이해: 욥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을 중심으로”, 『구약논단』 63

(2017), 139-164.

- 김영진 외, 「구약성서개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민영진/임승필, 「시서와 지혜서」 (광주: 생활성서사, 1999).
- 안근조, “옴과 베혜뫓 그리고 리위야단: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옴 40-41)에 대한 수사비평적 읽기”, 『神學思想』 126 (2004), 57-78.
- \_\_\_\_\_, 「지혜말씀으로 읽는 옴기」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_\_\_\_\_, 「하나님의 지혜 초청과 옴의 깨달음」 (경기: 킹덤북스, 2012).
- \_\_\_\_\_, 「새로운 구약성서 이해」 (서울: 감은사, 2023).
- 유윤중, “우가릿 신화에 나타난 신들간의 전투와 구약성서의 활용”,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1 (2004), 77-98.
- 이정학, “베혜뫓과 리위야단의 문학적 모티프에 나타난 옴의 정체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2017.
- 장일선, 「삶을 위한 지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주원준, 「구약성경과 신들」 (경기: 한님성서연구소, 2014).
- \_\_\_\_\_, 「고대 근동어」 (경기: 한님성서연구소, 2010).
- Anderson, Bernard W., 「구약성서이해」 (강성열/노항규 옮김),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9).
- Ash, Christopher., 「옴기」 (전의우 옮김), (서울: 성서유니온, 2014).
- Brueggemann, Walter., 「창세기」 (강성열 번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Clifford, Richard J., 「지혜서」 (안근조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 Clines, David J. A., 「옴기(상)」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 \_\_\_\_\_, 「옴기(하)」 (한영성 옮김), (서울: 솔로몬, 2014).
- Crenshaw, James L., 「구약 지혜문학의 이해」 (강성열 옮김),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8).
- Gutierrez, Gustavo., 「옴기」 (제3세계신학연구원 번역실 옮김), (서울: 나눔사, 1991).
- Longman III, Tremper., 「옴기주석」 (임요한 옮김),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17).
- Wenham, Gordon J., 「창세기 1-15」 (박영호 옮김), (서울: 솔로몬, 2006).
- Brenner, Athalya., “God’s Answer to Job”, *VT* 31 (1981), 130, 135.
- Daiches, David., “God Under Attack”, in *The Book of Job*. ed. by Harold Bloom (New Haven: Chelsea House, 1988), 59-60.
- Day, J., *God’s Conflict with the Dragon and the Se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Press, 1985).
- Driver, G. R., "Mythical Monsters in the Old Testament", in *Studi orientalistici in onore di Giorgio Levi della Vida*, I (Pubblicazioni dell'Istituto per l'Oriente 52: Rome: Istituto per l'Oriente, 1956), 234-238.
- Dhorme, E., *A Commentary on the Book of Job*. tr. by Harold Knight (London: Nelson, 1967), lxii.
- Fohrer, Georg., *Das Buch Hiob*, KAT 16 (Gütersloh: Gerd Mohn, 1963), 487ff.
- Fox, Michael., "Behemoth and Leviathan", *Biblica*, 93 no 2 (2012), 261-267.
- Gammie, J., "Behemoth and Leviathan. On the Didactic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Job 40:15-41", J. Gammie and W. Brueggemann, *Israelite Wisdom* (Missoula, Mont: Scholars Press, 1978).
- Gunkel, H., *Schöpfung und Chaos in Urzeit und Endzeit* (Göttingen: Vandenhoeck und Ruprecht, 1985).
- Gordis, Robert., *The Book of God and Man: A Study of Job*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5), 120.
- Habel, Norman C., *The Book of Job* (Philadelphia: Westminster, 1985).
- Jung, C. G., *Answer to Job* (trans. R. G. C. Hull: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54).
- Léveque, Jean., "L'Interprétation des Discourse de YHWH (Job 38,1-42,6)", in *the Book of Job*. ed by W. A. M. Beuken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12.
- Newell, Lynne B., "Job: Repentant or Rebellious?", *WTJ* 46 (1984), 298-316.
- Newsom, Carol A., "Considering Job", *Currents in Research* 1 (1993), 107.
- \_\_\_\_\_, *The Book of Job* (NIB IV; Nashville: Abingdon, 1996).
- O'Connor, Kathleen M., "Wild, Raging Creativity: The Scene in the Whirlwind (Job 38-41)", In *A God So Near: Essays on Old Testament theology in Honor of Patric D. Miller*. ed. by Brent A. Strawn and Nancy R. Bowen (Winona Lake: Eisenbrauns, 2003), 174-177.
- Pope, Marvin H., *Job* (New York: Doubleday, 1973), xxix; Terrien, 503-504.
- Steimann, Andrew E., "The Structure and Message of the Book of Job", *Vetus Testamentum* XLVI (1996), 86.
- Terrien, Samuel., *Job* (Neuchâtel: Delachaux et Niestlé, 1963).
- \_\_\_\_\_, "The Yahweh Speeches and Job's Responses", *Review and Expositor* LXVIII

(1971), 503.

Tsevat, Matitiah., "The Meaning of the Book of Job", *Hebrew Union College Annual* 37 (1966), 84, 89-90.

van Oorschot, J., *Gott als Grenze* (BZAW, 170; Berlin and New York: de Gruyter, 1987).

von Rad, G., *Wisdom in Israel* (Nashville: Avingdon, 1972).

van Wolde, Ellen J., "Job 42,1-6: The Reversal of Job", in *The Book of Job* (ed. W. A. M. Beuken; BETL 114; Leuven: Leuven University Press, 1994), 223-250.

Westermann, Claus., *Der Aufbau des Buches Hiob* (Stuttgart: Calwer Verlag, 1977), 108-124.

Whedbee, William., "The Comedy of Job", *Semeia* 7 (1977), 26.

Wolfers, David., "The Lord's Second Speech in the Book of Job", *VT XL* (1990), 474.

de Wilde, A., *Das Buch Hiob* (OTS, 22; Leiden: Brill, 1981), 42.

#### 검색어

베헤못, 리위야단, 읍의 정체성, 거대동물, 읍기

[ ABSTRACT ]

## Understanding Humanity through the Traditional Motif of Giant Beasts in the Old Testament: Focusing on Job 40–41

Jeong-Hak Lee  
Hoseo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human identity through the lens of giant beasts traditionally understood in the Old Testament. Focusing particularly on the literary motifs of the two giant beasts in Job 40 and 41, which have conventionally been interpreted as adversaries and forces of evil, the study examines their literary roles and the theological relationship between Job and these creatures. The primary aim is to elucidate an understanding of humanity, highlighting the elevation of faith experienced by humans through divine enlightenment, with the imagery of these beasts serving as instructional tools. The study employs literary criticism grounded in historical criticism. First, structural criticism is used to discus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narratives of Behemoth and Leviathan. Next, this study applies rhetorical criticism to trace changes in literary motifs through the repetition and variation of subjects. For additional objectivity, a comparative study with ancient Near Eastern literature is conducted in advance. The scope of the research is concentrated on the passages describing Behemoth and Leviathan (Job 40:15-41:34 [41:26]), while also reviewing other relevant scholarly works.

The paper is structured as follows. First, it provides a traditional

www.kci.go.kr

understanding of giant beasts, illustrating their perception in the context of the ancient Near East and their relevance to the Old Testamen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it considers how the literary motif of giant beasts is utilized. Second, to deepen the study of giant beasts in Job, it analyzes the account of Behemoth, describes the transformation of the literary motif of Behemoth in the Old Testamen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Behemoth and Job. Third, the paper addresses the literary motif associated with Leviathan, explaining why Leviathan — once regarded as a symbol of evil — is called a great creation of God, and discusses its relevance to Job's identity. Finally, building on the preceding research, it explains how God's speech from the storm provides insight to Job, illustrating the wisdom Job attains and the subsequent discovery of his identity. The study also seeks to identify points of contact between such divine discipline and image-based education for faith today.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research and notes its limitations.

Through this essay, Behemoth and Leviathan — previously marginalized as mere symbols of evil — are re-examined within theological discourse. Furthermore,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study contemplates divine discipline as presented in the Old Testament, offering proposals for understanding humanity, as well as educational and theological applications for current and future generations.

key words

Behemoth, Leviathan, Job's Identity, Giant Beasts, Book of Job

투고일: 2025년 04월 27일

심사일: 2025년 0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25년 06월 02일

www.kci.go.kr